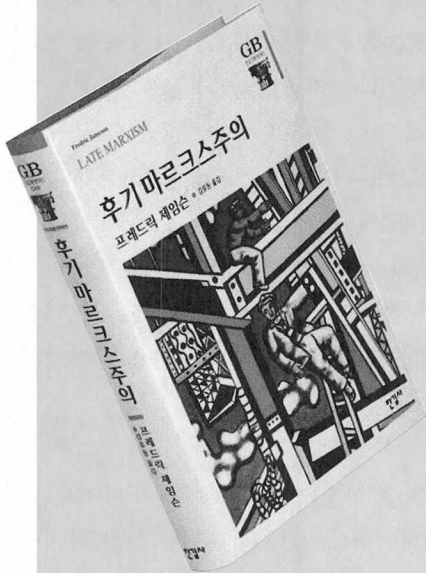


서평

아도르노 철학의 현재성 재조명해 해방운동의 실마리 찾지 못해 아쉬워

《후기 마르크스주의》



프레드릭 제임슨 지음 | 김유동 옮김
한길사/A5신/490면/20,000원

제임슨은 역시 매력적인 이론가다. 포스트모더니즘과 신자유주의 유행가들의 돌림노래로 온 세상이 소란한 이 시대에 그가 20세기 최고급의 시비꾼 아도르노에게 최신 버전의 마르크스주의 자격증을 마련해 주겠다고 나섰다. 《부정변증법》 《계몽의 변증법》 《최소한의 도덕》 《미학이론》을 비롯한 아도르노의 주요 저서들이 엮여내는 촘촘한 개념의 그물을 헤치면서 제임슨은 동일성, 변증법, 역사, 구도, 미메시스, 자유, 형이상학, 단자, 물화, 진리내용 등 아도르노 이론의 핵심문제들을 자신의 문법으로 재구성한다.

이 과정에서 제임슨은 아도르노 철학의 전제가 마르크스주의적이고 더군다나 ‘구식의’ 마르크스주의라고 본다. 그러면서도 그는 “아도르노가 ‘포스트모던’ 하지는 않지만 현재의 포스트모던한 시대와 어울리고 적절할 수 있다”고 단언한다.

제임슨은 그 근거를 우선 아도르노가 마르크스의 가치론을 수용한다는 점, 또 총체성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는다. 아울러 철학 문제의 해결을 사물들의 미래 질서에 위탁하고, 화해를 미래에 맡기는 점에서도 아도르노는 마르크스주의적이라는 것이다. 동시에 제임슨은 진리에 대

한 회의라는 측면에서 아도르노 이론과 포스트구조주의의 친화성을 찾는다. 또 알튀세르의 구조적 인과성과 아도르노의 구도 및 인과망 개념의 유사성을 지적하기도 한다.

아무개가 마르크스주의자나 아니냐 하는 물음은 의견상 사소한 논쟁거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물음은 이 시대에 마르크스주의가 어떻게 살아 움직일 것이냐 하는 물음을 촉발하는 것이기에 결코 사소한 것이 될 수 없다. 그것은 인류가 억압과 착취의 구조를 무너뜨리기 위해 아직도 이성의 이름으로 집단적 에너지를 모아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기도 하다. 마르크스주의의 생명력에 대한 물음은 해방운동의 미래를 겨냥하는 것이다.

제임슨은 아도르노와 씨름하면서 “깊숙한 이데올로기 문제나 정치문제에 대한 좌파적 참여 없는 미래는 상상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는 이 참여의 동력이 마르크스주의 고전이 아닌 사회 현실에 대한 객관적 경험에서 나온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때 총체성은 본질적인 범주다. “개개의 원인이나 문제들 또는 특정한 형태의 불의는 밀접하게 연결된 사회적 차원들을 하나의 총체성으로 응집시켜 사회적 변혁을 위한 정치적 참여로 이끌지 않고는 밝혀질 수도, 해결될 수도 없다.”

그러나 이 책에서 객관과의 대결에 근거한 인식이 풍부해 보이지는 않는다. 후기 마르크스주의라는 주제가 유발하는 기대감, 즉 이 시대에 적합한 해방운동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감은 충족되지 못한다. 논의가 총체성 재현의 필요성에 대한 강조 주위를 맴돈다는 느낌이다. 이 점에서 제임슨의 마르크스주의는 포스트모던한 조건을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시대에 대한 적합성을 잃지 않는 가운데 실증주의를 뛰어넘는 일은 결국 우리의 과제임을 다시 확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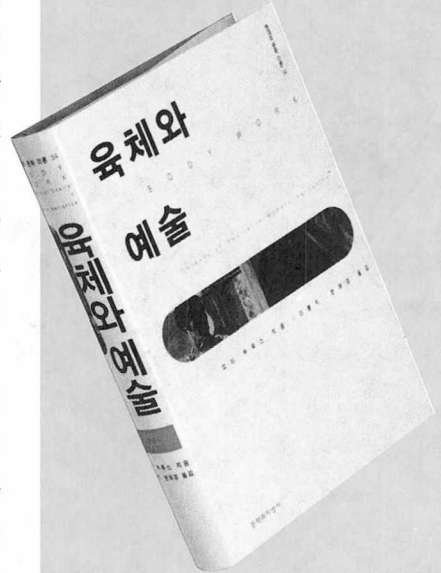
홍승용

대구대 독문과 교수. 역서 《미학이론》 《부정변증법》 《문제는 리얼리즘이다》, 논문 《루카치 리얼리즘론 연구》 외.

서평

서사와 육체, 플롯의 상관성 밝혀 미시적 문학사 서술 가능성 보여줘

《육체와 예술》



피터 브룩스 지음 | 이봉지 외 옮김
문학과지성사/A5신/532면/22,000원

《육체와 예술》은 주로 근대 이후 서구문학에서 육체가 어떻게 서술의 주된 대상으로 부상하게 됐으며, 동시에 그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 서술의 원리로까지 기능하게 됐는가를 역사적으로 고찰한 책이다. 이 과정에서 지은이는 루소에서 발자크와 졸라, 그리고 헨리 제임스와 뒤라스에 이르는 지명한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은 물론, 마네와 쿠르베, 그리고 고갱 등의 그림과 존 드 안드레아의 조각에 이르는 방대한 텍스트들을 검토함으로써, 육체에 관한 서구인들의 인식의 역사를 재구성하고 있다.

지은이 자신이 이 책을 문학에 관한 연구서라고 규정했으면서도 동시에 미술(과 미술평론)과 조각품까지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듯, 지은이의 이런 태도는 기본적으로 “시각, 지식, 진리, 여자의 육체, 이런 것들이 서로 어울려 우리 문화의 중심적인, 그리고 매우 의미심장한 태도와 몸짓을 구성”한다고 믿고 있다. 지은이는 그것을 다른 말로 ‘지식에게 충동’ 내지는 서구의 ‘형이상학적 돈 환 전통’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런 명칭과 접근법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책에서 지은이가 기도하는 것은 간단히 말해 육체에 대한 서구인들의 인식형성

과 그 변화과정이다. 그리고 지은이 자신이 이 책에서 긴스버그의 통찰을 인용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듯, 이 책의 이런 체제와 접근방법은 어느 모로든 최근 역사학계에서 자주 논의되는 미시사의 그것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이 책의 지은이는 문학연구자들에게는 익히 알려져 있는 문학이론가다. 《멜로 드라마적 상상력》과 《플롯을 위한 독서》 같은 저작이 그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육체와 예술》도 사실은 그의 이전 연구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것은 이 책이 기도하는 바가 일종의 육체라는 필터를 통한 문학사 내지는 문학정신사를 겨냥하고 있는 바, 사실상 이런 작업은 서사의 원동력과 그것을 규정하고 있는 격정극적 세계관을 함께 해명하고자 했던 앞선 작업과 긴밀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서사와 육체, 그리고 플롯의 상관성에 대한 지은이의 이번 논의는 비록 문학연구자가 아니라도 읽는이들에게 남성적 응시와 그 대상으로서 여성의 육체라는 오랜 문화적 인식론의 관계를 복합적으로 살펴보도록 자극한다. 이 과정에서 지은이는 그의 관심사가 페미니즘의 인식론을 수렴하면서 일종의 미시사적인 문학사 서술의 가능성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은이의 이번 저작은 문학사 서술에 대한 우리의 낡은 관념은 물론, 실제적 측면에서 나름의 방법론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페미니스트들에게도 하나의 훌륭한 본이 되기에 족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우리 내부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한 번역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주는 소중한 책이다.

김경수

문학평론가. 저서 《염상섭 장편소설연구》 《문학의 편견》 외.

서평

디지털 시대의 문제 유희적으로 풀어내 혼돈의 시각에서 세계를 바라봐

《컨트롤된 카오스》



노르베르트 볼츠 지음 | 윤중석 옮김
문예출판사/A5신/406면/14,000원

최근 잘 나가는 책은 무엇일까? 그건 단연코 경제·경영서다. 경제·경영서는 내용이야 어떻든 제목만 잘 뽑으면 잘 팔린다. 뭐든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것만 찾는 우리들의 조급한 문화, 그 문화가 도서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 또한 그렇다. 앞 뒤 생각할 것 없다. 그게 돈이 되는지,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것만 생각해 왔다. 철학이 빠진 현실에서 그것의 원리와 사회변화, 그리고 변화하는 현실을 고민하기보단 마치 불나방처럼 우리는 '돈'을 향해 달려왔다.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 남아 있는 건 속빈 강정뿐이다. 단 한번의 '폭풍'으로 우리의 닷컴사들은 속절없이 쓰러져 가고 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잘못한 걸까? 단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사회의 흐름을 보고, 그 원리부터 새롭게 사고하고 다시 출발해야 한다. 다시 사회를 설명하고 세계를 설계해야 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인문학을 발전시키기보다 조롱하고 무시해왔다. 돈이 안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철학 부재의 현실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닌 우리의 논리 속에서 만들어

낸 새로운 세계, 디지털(digit)의 세계에 대한 설명력을 잃어버렸다. 이제 이 위기에서 벗어나야만이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독일 철학자 노르베르트 볼츠의 《컨트롤된 카오스》는 '이성의 나라' 독일답게 이 혼돈의 (Chaotic) 세계에 대한 답을 준다. 그의 눈으로 봤을 때 혼란스럽게 보이는 이 세계는 단지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을 뿐이다. 그렇기에 그는 우선 이전처럼 경직된 사고방식이 아닌 자유로운, 아직 발견되지 않은 가능성으로 가득 찬 유희의 공간으로 세계를 보라고 주문한다. 질서와 혼돈이라는 종래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지금껏 보이지 않고 볼 수 없었던 사고의 유희가 펼쳐지는 공간으로서 우리의 세계를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카오스의 아이들》의 저자 더글라스 러쉬코프(D. Rushkoff)도 마찬가지로 견해를 펼치고 있다. 그 또한 혼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혼돈의 시각으로 세계를 봐야 한다는 전제 아래 스스로 물밑으로 내려가 서로 연결돼 있는 불연속의 이면들을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볼츠의 책은 모두 9장으로 구성됐다. 그 스스로 하이퍼텍스트적 글쓰기를 했다고 주장하며 문맥에 관계없이 처음부터 글을 읽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럴 필요는 없다. 볼츠의 책은 저 프랑스의 포스트모던 전사들의 책처럼 난해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냥 읽기 시작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단숨에 읽을 수 있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철학이나 경제·경영서처럼 단순하진 않다. '휴머니즘에서 뉴미디어로'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이 책은 디지털 시대 미디어가 만들어 내는 인간과 대상 사이의 '거리'와 사유, 인식의 변화 문제를 유희적으로 풀어내고 있다. 그런 점에서 나는 단순한 표면이 아니라 깊이의 변화로 디지털 시대를 읽어내고자 하는, 그리고 지금이 아닌 더 먼 미래를 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다.

라도삼

중앙대 신방과 강사. 저서 《비트의 문명 네트워크의 사회》 (인터넷과 커뮤니케이션)(공저) 외.